

경계선 지능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분석

변 관 석¹ · 신 진 숙²

¹경남은혜학교, ²창원대학교 특수교육과

An Analytic Review of Research Paper Related to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in South Korea

Byeon, Gwan-Seok¹ · Shin, Jin-Sook²

¹Gyeongnam Eunhye School; ²Ch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Special Education

Abstract

Purpose: The literatures related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were systematically reviewed to summarize the current knowledge. **Method:** 345 studies were searched from the database, and 51 studies were selected and reviewed for this research. **Results:** Results of this review indicate that studies related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were improved from 2000s, and many of studies were conducted in clinical settings in south korea. Some risk factors containing the low birth weight and preventive factors including of education, clinical service were also reported respectively. However, these factors were not specific to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lso face a variety of challenges in life, including cognitive, academical, social, and emotional challenges. **Conclusion:** The review demonstrated that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is almost invisible in the field of research. More research, social discussions, and flexible support system are needed continually.

※ Key words :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slow learner, research trend,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I. 서 론

경계선 지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은 일반적으로 평균에서 -1표준편차 이하인 71~84 사이의 지능지수로 정의되며, 지능의 정규분포를 고려할 때, 전 인구의 13.6% 정도가 경계선 지능 범주에 속한다(신진숙, 2010; 정희정, 이재연, 2008).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당시에는 미국 정신지체 협회)에서는 1961년의 제6차 정의까지는 경계선 지능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도 지적장애로 판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았지만, 1973년의 제7차 정의에 이르러 적응행동의 결함의 유의미하지 않다는 이유로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들(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을 지적장애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AAIDD, 2010).

하지만 약 30여년이 지난 후 미국 대통령 직속 정신지체 위원회(PCMR)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성인들이 재정, 고용, 주거, 삶, 가족 관계 등 모든 측면에서 크나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의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President's Committee on Mental Retardation, 1999). 이러한 위원회의 제언은 Fujiura(2003)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는데, 그의 연구에서는 경계선 지능 집단이 지적장애 집단과 상당한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집단을 학습장애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판별하여, 적절한 교육 및 사회·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최근 개정된 미국 정신의학 진단 및 통계 편람(DSM-5)에서도 이러한 연구 경향에 따라 경계선 지능을 임상적 주의가 필요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태로 명명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국내에서도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은 한 반에 3명꼴로 전국적으로는 80만 명이 존재하고 있다고 예측되며, 학업능력 수준이 하위 8%이하로 학습에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강옥려, 2016). 또한 학교 상황에서의 어려움과 더불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법적으로 장애인 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훈련 지원이나 취업 장면에서의 복지 혜택을 거의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진로 역량의 개발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일반인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지적인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는 정도 지적장애인과 비교해서도 적다는 것이 현재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강옥려, 2016; Seltze et al, 2005). 이러한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당국은 2016년 2월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를 개정하여, 이들을 위한 교육적 시책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보다 개별화되고 장기적인 차원의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의 접근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경계선 지능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 13.6%에 달하고 있으며, 개별화되고 전문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경계선 지능과 관련된 특수교육 연구에서 관심의 초점은 경도 지적장애 또는 특정학습장애에 맞춰진 경향이 있었으며, 경계선 지능을 가진 집단은 경도 지적장애 또는 학습장애와 비슷한 것으로 혼재되거나 단순히 통제 집단으로만 다루어진 경우가 많았다(Peltopuro, Ahonen, Kaartinen, Seppala, & Narhi, 2014). 이러한 학문적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경계선 지능 관련 연구의 성과를 재정립 하고자, Peltopuro와 동료들(2014)은 영어로 기술된 경계선 지능 관련 국외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문헌 연구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등에서 출판된 경계선 지능 관련 양적 연구 49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과 성인의 신경 인지적 특성, 사회성 관련 요인, 그리고 정신 건강 문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시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김재은 등(1973)이 다양한 학습적 문제 유발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처음으로 학습지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2000년대 이후로 경계선 지능 또는 경계선 지적기능과 같은 용어가 사용되면서, 이에 대한 여러 방법론의 연구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강옥려, 2016; 김근하, 김동일, 2007; 유경, 정은희, 김락형, 2007; 정희정, 이재연, 2008). 또한 앞으로도 경계선 지능의 범주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다양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 수행에 앞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내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고찰을 통해 확인된 정보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식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향후 관련 분야 연구와 실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경계선 지능 관련 국내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국내의 학문적 현실을 반영하여, 학술지 게재 논문과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계선 지능 관련 연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때 앞서 언급된 Peltopuro와 동료들(2014)이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의 분석 틀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도 하위 영역을 연구 동향 분석, 위험 및 예방요인 관련 연구 결과 분석, 경계선 지능의 심리적 특성 분석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문헌을 분석한다면,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관련 분야의 효율적인 후속연구를 촉진하고, 현재까지 여러 연구들에 걸쳐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들을 보다 실제적인 지식으로 재정립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 교육 현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계선 지능 관련 문헌의 연구 주제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봄과 동시에, 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이들의 다양한 인지 및 심리학적 특성, 그리고 중재 전략의 특징 및 위험·예방요인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의 경계선 지능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재정립하고, 국내의 경계선 지능에 대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에 대한 국내 연구의 출판년도, 학문 영역, 연구 방법, 연구 대상별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에 대한 발생 위험 및 예방요인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중재 전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셋째,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의 인지, 언어 및 정서·행동적 특성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6년 11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경계선 지능과 관련된 논문을 포함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 논문, 학술지 게재 논문, 기타 문헌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문헌연구 방법으로써(Peltopuro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 검색이 가능한 학술지 게재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학위논문을 분석 절차에 포함하였다. 이 때, 연구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면서 한국어로 기술된 경계선 지능 관련 연구라고 한다면 연구 방법, 학문 분야 등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문헌 검색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구글 스콜라, 교보문고 스콜라, 누리미디어 등의 전자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년 11월 말일을 기준으로 경계선 지능 관련 국내 문헌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색은 한국어와 영어로 이루어졌으며, 경계선 지능에 대한 용어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경계선 지능, 경계선 지적 기능, 경계선급, 경계선급 지능, 경계선 지적장애, 경계선 정신지체, 일반적 학습장애, 느린 학습자, borderline intelligence,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slow-learner 등의 총 11개의 용어로 검색이 이루어졌다.

2. 문헌 선정 절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검색된 논문들은 학위논문 193편, 학술지 게재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 152편을 포함하여 총 345편이었다. 이들 논문들에 대하여 가장 먼저 제목 및 초록을 통한 선별 절차가 이루어졌으며, ① 연구 내용이 경계선 지능과 무관한 경우, ② 연구 참여자가 경계선 지능 범주에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총 264편의 연구를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이후에 남은 8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본문에 대한 분석을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학위논문과 학

술지 게재 논문에 중복으로 포함되어 있는 문헌은 학술지 게재 논문에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학위논문 21편, 학술대회 발표논문 3편(고일영, 2010; 김근하, 김동일, 2007; 김원정, 이경숙, 신의진, 2007), 학술지 게재 논문 27편, 총 51편을 본 연구에서의 체계적 문헌고찰 과정에 포함하였다. 이 중에서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학술지에 게재된 것은 아니지만 학술지를 발간하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편의상 학술지 게재 논문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위와 같은 문헌의 선정 절차는 제1연구자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제2연구자가 같은 방법으로 문헌 선정 절차를 독립적으로 재실행해 봄으로써 절차적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문헌 선정에 대한 신뢰성 측정 결과 최초 동의 정도는 97%였으며,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100%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절차를 거쳐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 포함된 논문의 목록은 Peltopuro와 동료들(2014)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각 영역에 제시하였으며, 참고문헌에 저자 및 논문 제목 등을 보다 자세하게 기재하였다.

3. 자료 분석 기준 및 분석자간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Peltopuro와 동료들(2014)이 실시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기준을 최대한 동일하게 선정하였다. 이는 Peltopuro와 동료들(2014)의 연구 수행 목적이 간략한 연구 동향의 분석을 통한 관련 학문 분야의 후속 연구 촉진 및 관련 지식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립으로써, 본 연구의 수행 목적과도 일치하며, 분석된 국내 문헌들도 대부분 이 기준에 의해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였기 때문이다.

<Table II-1> Criteria of analysis

<표 II-1> 분석 기준

Categories (The number of analyzed studies)		Criteria of analysis
Main-Questions	Sub-questions	
1) Trends of Korean research related BIF* (51)	Year of publication (51)	① 2000s before, ② 2000-2005, ③ 2006-2010, ④ 2011-2015, ⑤ 2016(~11.30)
	Studies areas (51)	① pedagogy, ② Medicine, ③ therapy areas, ④ Social welfare
	Studies methods (51)	① Literature review, ② Qualitative research, ③ Survey research, ④ Experimental studies, ⑤ Intervention studies
	Subjects of studies (51)	① Before school age, ② School ages, ③ Adulthood, ④ Parents

(Continued)

Categories (The number of analyzed studies)		Criteria of analysis
Main-Questions	Sub-questions	
2) Risk factors & preventive factors related individuals with BIF (30: 58.8%)	Risk factors (2)	① Category, ② Risk factors of BIF, ③ Conclusion
	Preventive factors (7)	① Category, ② Preventive factors of BIF, ③ Conclusion
	Interventions (21)	① Participants, ② Independent variables, ③ Areas, ④ Dependent variables, ④ Design
3)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with BIF (21: 41.2%)	Cognitive characteristics (4)	① Participants ② variables, ③ Conclusion, ④ Test tool ⑤ Study method
	Linguistic characteristics (15)	① Participants ② variables, ③ Conclusion, ④ Test tool, ⑤ Study method
	Emotional·behavioral characteristics (2)	① Participants ② Theme of study, ③ Conclusion, ④ Test tool, ⑤ method

*BIF: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 국내 연구 동향 분석, 2) 위험·예방요인 및 중재전략 관련 연구 분석, 3)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의 심리적 특성 분석 등의 세 가지 범주로 자료가 분석되었다. 이중에서 제1범주인 국내 연구 동향 분석은 전체 51편의 논문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제2범주 및 제3범주는 51편의 논문을 연구 내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각각 30편(58.8%)과 21편(41.2%)의 논문을 분석 과정에 포함하였다. 세부적인 분석기준과 분석된 논문의 수는 <표 II-1>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각 변인별 분류와 빈도수 및 백분율 산출은 Microsoft EXCEL 20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한편 절차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자료 분석 과정 절차를 제2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재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분석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경계선 지능 관련 국내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

1) 출판연도 동향

<표 III-1>을 바탕으로 논문의 출판연도를 살펴보면, 권영주(1998)의 연구를 제외한 모든 연구가 2000년대 이후에 출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서 국내에서 경계선 지능에 대한 학문분야의 관심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출판된 논문이 9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출판된 논문이 11편, 2011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출판된 논문이 20편으로 경계선 지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계속적으로 증대되어 2016년에는 한 해 동안 총 10편의 관련 논문이 출판되었다.

<Table III-1> Trends for years of publications

<표 III-1> 출판연도 동향

Years	2000s before	2000-2005	2006-2010	2011-2015	2016 (-11.30)	Total
Quantity	1	9	11	20	10	51
(Percentage: %)	(2.0)	(17.6)	(21.6)	(39.2)	(19.6)	(100)

2) 학문 영역 동향

학문 영역의 경계는 사실 상당 부분 모호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원희, 곽승철(2015)과 Peltopuro와 동료들(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학술지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된 학술지의 학문 영역을,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연구자의 학위 전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문 영역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구분하기에 모호한 논문의 경우에는 연구의 주제를 바탕으로 학문 분야를 선정하였다.

<표 III-2>를 바탕으로 경계선 지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학문 영역을 비교해보면, 교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16편이었으며, 이 중에서 특수교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9편이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6편, 의학에서는 2편의 논문이 출판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27편의 연구가 언어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의 치료 관련 학문 영역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체 연구의 약 52.9%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국내 경계선 지능 관련 연구가 치료 관련 학문 영역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III-2> Trends for study area

<표 III-2> 학문영역 동향

Areas	Pedagogy (Special education)	Social Welfare	Medicine	Therapy				Total
				SLP*	PT**	AT***	other	
Quantity	16 (9)	6	2	11	8	6	2	51
(Percentage: %)	(31.4)	(11.8)	(3.9%)	(21.6)	(15.7)	(11.8)	(3.9)	(100)

*SLP: Speech Language Pathology **PT: Play Therapy ***AT : Art Therapy

3) 연구방법 동향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보면, 강옥려(2016)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경계선 지적 기능 관련 문헌의 일부를 정리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제안해 본 문헌연구가 1(2.0%)건 있었으며, 그 외에 면담을 이용한 질적 연구가 4(7.8%)건, 설문지나 기존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는 조사연구가 6(11.8%)건, 실험연구가 19(37.3%)건, 집단, 단일 사례, 사례 연구 등을 포함하는 중재연구가 21(41.2%)건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실험연구와 중재연구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 실험 연구는 주로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아동들의 언어, 인지, 정의적 특성을 일반 아동 또는 타 장애 집단과 비교해 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중재연구는 주로 치료적 접근에 의한 중재 프로그램들을 단일사례연구 또는 사례연구 설계로 실시해 본 연구들이 가장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4) 연구대상 동향

<표 III-3>을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진현정(2016)이 경계선 지능 범주 성인의 자립 과정에 대해서 질적인 방법으로 연구한 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가 대부분 학령 전기와 학령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총 34건(66.7%)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경계선 지능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는 2편(박숙자, 2016; 최말옥, 20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III-3> Trends for subjects of studies

<표 III-3> 연구대상 동향

Subjects	Before School ages	School ages			Adulthood	Parent	Total
		Elementary	Middle/High	Complex			
Quantity	6	34	3	5	1	2	51
(Percentage: %)	(11.8)	(66.7)	(5.9)	(9.8)	(2.0)	(3.9)	(100)

2.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에 대한 발생 위험·예방 요인 및 중재 전략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의 발생 위험·예방요인 및 중재전략에 대한 논문은 총 30편으로 나타나, 전체 51편의 연구 중 58.8%를 차지하였다. 이중에서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논문은 2편, 예방요인에 대한 논문은 7편, 중재전략에 대한 연구는 21편으로 나타났다.

1) 발생 위험요인 및 예방요인

경계선 지능의 발생 위험·예방요인에 관한 논문은 <표III-4>와 같이 제시되었다. 먼저 경계선

지능의 발생 위험 요인에 대해서 연구된 국내 문헌은 총 2건이었으며, 문헌 분석 결과 소두증, 출생 시 저체중, 미숙아 등이 경계선 지능의 발생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정희정, 2002; 오승택, 이은실, 문한우, 2008).

다음으로 예방 요인은 경계선 지적기능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거나(1,2차 예방), 이미 경계선 지능 범주에 포함되었을 때, 이들이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3차 예방) 등을 포함한다(신진숙, 2010). 이는 앞서 살펴본 발생 위험 요인들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예방 요인으로는 ① 특수교육의 제공을 포함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의 실행(강옥려, 2016; 이숙향, 안혜신, 2011), ②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치료 서비스의 집중적인 제공(고일영, 2010), ③ 지원적 양육 과정 및 제도화된 기관을 통한 복지 서비스의 제공(박숙자, 2016; 정선화, 2016; 진현정, 2016; 최말옥, 2014) 등이 주요하게 제시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결과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에게 교육, 치료 및 사회 복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Table III-4> Risk and preventative factors

<표 III-4> 위험·예방요인

Category	Factor	Authors	Conclusion
Risk factor	Medicine	Jeong (2002)	-Microcephalia was caused of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BIF).
		Oh, Lee & Moon (2009)	-Cause of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Microcephalia low weigh in birth premature baby
Preventive factor	Educational support	Gang (2016)	-The author requires the providing of additional compensational education.
		Lee & Ahn (2011)	-Individualized supports in the secondary inclusion education were needed. -The necessity of cooperative programs among school-school was proposed.
	Therapeutic support	Go (2010)	-The necessity of therapy supports in many areas and financial support was proposed.
	Parenting support & Welfare service	Choi (2014)	-The necessity of specialized supports in the parenting was proposed.
		Jeong (2016)	-The effective management of local children's centers was demanded.
		Jin (2016)	-The necessity of systematic transition education was proposed.
		Park (2016)	-The necessity of specialized supports in the parenting procedure was proposed.

2)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한 중재연구의 특징

경계선 지능 범주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내 중재연구는 총 21편으로 문헌 분석 결과는 <표 III-5>와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학문영역별로 중재연구의 독립 및 종속변인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특수교육학을 포함하는 교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총 4편으로, 무용동작을 활용한 체육 프로그램(윤정아, 2015), 국어교육 측면에서 말하기(송현주, 2008), 컴퓨팅 기술과 초인지 전략을 활용한 쓰기 중재(김수영, 2006; 이기정, 2016)를 실시해 본 연구가 있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1편으로, 일반 대학생을 멘토로 하고, 경계선 지능 범주의 청소년을 멘티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효과성을 확인해 본 연구(이금진, 2011)가 있었다.

세 번째로, 치료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총 16편으로 전체 중재연구 중 대다수인 76.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언어치료 분야에서의 연구는 총 1편으로 광미영(2006)이 스토리맵을 활용한 중재가 아동의 이야기 산출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미술치료 분야에서의 연구는 총 6편으로서, 주로 사회적 능력 또는 부적응 행동 개선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와 경계선 지능 범주의 아동이 함께 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중재가 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 또한 놀이치료 분야의 연구는 총 7편으로서, 대부분 구조화된 장면에서의 집단적인 놀이치료와 초인지 전략의 적용이 효과성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맹새봄, 2012). 마지막으로 심리치료 분야에서 이루어진 2건의 연구 역시 사회적 인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중재가 적용되었으며, 미술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모아가 함께하는 심리적 중재가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이정은, 2014).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 및 연구 설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는 미취학 아동 대상 1편,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대상 2편을 제외한 18편(85.7%)의 논문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총 54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선정한 윤지현(2014)의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들은 참여자가 1명에서 12명까지이며,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6편), 사례연구(9편), 그리고 단일사례설계연구(5편)가 대다수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적응행동 개선, 사회적 인지 및 상호작용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 증진 목적의 연구가 9편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는 인지, 언어, 학습능력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Table III-5> Characteristics of intervention studies

<표 III-5> 중재연구의 특징

Areas	Authors	Participants(n)	Studies design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Pedagogy (4)	Yoon (2015)	Adolescent (10)	Single group**	Dance movement training	Cognitive, behavioral effect
	Kim (2006)	Elementary (3)	Single case***	Electronic Portfolio	Writing expression
	Lee (2016)	Elementary (3)	Single case	Diary writing with mind-map	
	Song (2008)	Elementary (3)	Single case	Compare-comprehension (meta-cognition)	Demand of clarification
Social welfare (1)	Lee (2011)	Adolescent (10)	Single group	Mentor program	Social maturity
SLP*(1)	Gwak (2006)	Elementary (4)	Single case	Language Intervention using story Map	A mount of spoken language
Art therapy (6)	Kim & Won (2013)	Elementary (1)	Case study	Art therapy among mother-child	Problem behavior
	Oh (2001)	Elementary (1)	Case study	Art therapy program	Self-expression, attention
	Jeong (2004)	Elementary (1)	Case study	Art therapy	
	Seo (2015)	Elementary (1)	Case study	Art therapy among mother-child	Maladaptive behavior
	Lee (2012)	Elementary (9)	Single group	Group art therapy	Social cognition
	Yoon (2014)	Elementary (54)	Control group****	Art therapy among mother-child	
Play therapy (7)	Kwun (1998)	Elementary (3)	Case study	Structured group play therapy	Adaptive behavior
	Lee & Park (2002)	Elementary (1)	Case study	Play therapy program	Social interaction
	Yoon & Kim (2000)	Elementary (1)	Case study	Play therapy program	Psychological stability
	Choi (2016)	Elementary (8)	Single group	Group play therapy	Social skills
	Kim (2010)	Preschooler (3)	Single case	Structured group play therapy	Emotional intelligence
	Song & Kim (20001)	Elementary (1)	Case study	Game play therapy	Attention behavior
	Maeng (2012)	Elementary (12)	Single group	Group play using think-aloud	Self-controlling ability
Psychotherapy (2)	Kim, Lee & Shin (2007)	Elementary (5)	Single group	Emotional·cognitive program	Social cognition
	Lee (2014)	Elementary (1)	Case study	Interaction activity among mother-child	Social interaction

*SLP : Speech Language Pathology, **Singl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Single case research,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3.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의 특성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논문은 총 21편으로 나타나, 전체 51편의 연구 중 41.2%를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 인지적 특성에 대한 논문은 4편, 언어적 특성에 대한 논문은 15편, 정서·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는 2편(중복 포함 시 4편)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정은희, 이재연(2005), 정은희, 이재연(2008)은 인지적 특성과 함께 정서·행동적 특성과 함께 연구되어, 두 하위 영역에서 중복으로 분석되었다.

1)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의 인지적 특성

경계선 지능 범주의 개인에 대한 인지적 특성을 연구한 국내 문헌은 총 4편이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 III-6>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 4편은 모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표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총 4편의 연구에서 단순언어장애와의 비교 연구를 실시한 유경, 정은희, 김락형(2008)의 연구를 제외한 3건의 연구는 일반아동과의 인지적 특성 비교를 실시해 본 연구였다.

논문의 분석 결과, 일반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경계선 지능 범주 아동들의 인지적 특성으로는 특히 사회적 이해 및 언어성 지능에서의 문제를 포함하는 전반적으로 낮은 인지 능력, 그리고 정보처리, 읽기, 계산 등의 학습능력에서의 결함,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지·학습적 문제로 인한 학업 성취에서의 누적되는 유의미한 결손이 주요하게 제시되었다(정희정, 이재연, 2005; 정희정, 2008; 김근하, 김동일, 2007). 한편 단순언어장애 아동들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언어성 지능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문제해결력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계선 지능 범주의 아동들이 단순언어장애 수준이나 그 이상의 언어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유경, 정은희, 김락형, 2008).

<Table III-6>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with BIF

<표 III-6>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의 인지적 특성

Authors	Methods	Dependent variables	Comparison		Test tool
			GP*	SLI**	
Jeong & Lee (2005)	Experimental	Cognitive abilities	poor	-	K-WISC-III
Jeong & Lee (2008)	Experimental	Cognitive abilities -Verbal IQ -Motional IQ Academic achievement -Processing -Reading -Calculation	poor poor a little poor poor poor poor poor	-	K-WISC-III KNISE-BAAT ***
Kim & Kim (2007)	Survey	Academic(Korean) Academic(Math)	poor poor	-	-
Yoo, Jeong & Kim (2008)	Experimental	Verbal IQ Problem Solving	-	similar poor	K-WISC-III

*GP: Genera Population, **SLI: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KNISE-Basic Academic Achievement Test

2)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의 언어적 특성

경계선 지능 범주의 개인들에 대한 언어적 특성을 연구한 국내 문헌은 총 15편이었다. 이들 연구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언어의 하위 영역별로 분류하여, <표 III-7>과 같이 제시하였다. 총 15건의 연구 모두는 실험연구였기 때문에 표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모든 연구는 각종 표준화된 검사도구, 혹은 연구자 제작 검사도구 등을 활용하여 경계선 지능 범주 아동들의 언어능력을 비교하였다. 또한 이 연구들은 김주영, 김자경(2016)의 연구에서 유치원생이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단순언어장애 아동과의 비교를 실시한 김수영(2002)의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12건의 연구 모두는 일반아동과의 비교만 실시되었으며, 이 중 6건의 연구는 생활연령 일치 집단과 언어발달연령 일치 집단을 구분하였다.

문헌 분석 결과를 언어의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말하기에서는 명료화 요구하기 및 문장 말하기, 담화 능력에서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아동들과는 능력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아동들에게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경계선 지능 범주에 속하는 아동들의 말하기 능력 발달은 유의미하게 지체되어 있으나 일반 아동들과 다른 발달 경로를 가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김후비, 2012; 박해성, 2006; 이수진, 김하수, 2016).

두 번째로, 듣기 영역에서는 참조적 듣기 능력에 대해서 언어연령이 일치하는 일반아동과 비교해 본 연구가 있었으며, 그 결과 언어발달 연령을 일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선 지능 범주의 아동들이 참조적 듣기 영역에서 일반아동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지체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경계선 지능 범주의 아동들이 보이는 주요한 정의적 특성 중에서 주의집중력의 문제가 참조적 듣기 능력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제시되었다(김민경, 2015).

세 번째로, 읽기 영역에서는 글의 해독이나 간단한 문장의 독해에 있어서는 경계선 지능 범주의 아동들과 일반아동들 간에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다소 복잡한 구문 단계로 진입할수록 독해력에서의 차이가 커졌으며, 은유나 관용어의 이해능력은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경우에도 다소 부족함을 확인하였다(곽윤지, 2016; 김수진, 2015; 김주영, 김자경, 2016).

네 번째로, 쓰기 영역에서는 내용지식을 제외한 언어지식, 텍스트 맥락 지식, 명제적 지식 그리고 절차적 지식 등을 포함하는 쓰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하위 요소에서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들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지체되어 있었다(유경, 정은희, 2007, 2008).

다섯 번째로, 어휘 영역에서는 특히 단어 의미 추론능력, 어휘의 중의성 이해 등을 포함하여 주로 수용 어휘력 측면에서의 지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수용 어휘력의 문제가 전반적인 어휘력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았다(김은지, 2015; 유경, 정은희, 김락형, 2007; 유승미, 2015).

여섯 번째로 문법 영역에서는 조사의 사용이 일반아동들에 비해서 부족하고(임종아, 황민아, 2006), 특히 문법형태소의 사용도 일반아동에 비해서 지체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체 수준은 단순 언어장애와 유사한 정도였다(김수영, 2002).

<Table III-7>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with BIF

<표 III-7>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의 언어적 특성

Area	Authors	Participant	Dependent variables	Comparison			Test tool
				General population		SLI***	
				CA*	LA**		
Speaking	Kim (2012)	Elementary	Shadowing sentence	poor	similar	–	Researcher developed test
	Park (2006)	Elementary	Demanding clarification	poor	similar	–	Researcher developed test
	Lee & Kim (2016)	Elementary	Narrative(pragmatic) abilities	poor	–	–	Researcher developed test
Listening	Kim (2015)	Elementary	Referential listening	–	poor	–	Researcher developed test
Reading	Gwak (2016)	Elementary	Meaning reasoning	poor	–	–	Researcher developed test
	Kim (2015)	Elementary	Idioms understanding	–	poor	–	Researcher developed test
	Kim & Kim (2016)	Preschooler Elementary	Overall reading –Decoding –Simple sentence reading –Paragraph reading	poor similar similar poor	–	–	K-WISC-IV KNISE-BAAT****
Writing	Yoo & Jeong (2007)	Elementary	Overall writing knowledge –linguistic knowledge –Text contextual knowledge –Content knowledge	poor poor poor similar	–	–	K-WISC-III Test of problem solving
	Yoo & Jeong (2008)	Elementary	Overall writing knowledge –Propositional Knowledge –Procedural Knowledge –Linguistic knowledge	poor poor poor poor	–	–	Researcher developed test

(Continued)

Area	Authors	Participant	Dependent variables	Comparison			Test tool
				General population		SLI***	
				CA*	LA**		
Vocabulary	Kim (2015)	Elementary	Word meaning reasoning	–	poor	–	Researcher developed test
	Yoo, Jeong & Kim (2007)	Elementary	Receptive vocabulary Linguistic problem solving	poor poor	–	–	PPVP-R***** Test of problem solving
	Yoo (2015)	Elementary	Ambiguity of word –Dominant meaning –subordinate meaning	poor poor poor	– poor similar	–	Researcher developed test
Grammar	Im & Hwang (2006)	Elementary	Grammatical judgment –Postposition –Error correction	poor poor poor	–	–	Researcher developed test
	Kim (2002)	Elementary	Using the morphology	poor	–	similar	Researcher developed test
etc	Im, Hwang & Go (2016)	Elementary	Meta-linguistic abilities	poor	–	–	Researcher developed test

*CA: Chronological Ages matching, **LA: Language Ages matching, ***SLI: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KNISE-Basic Academic Achievement Test,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Revised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경계선 지능 범주의 아동들은 일반아동들에 비해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리고 어휘 및 문법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지체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언어 추론 및 언어 이해능력, 언어문제해결력 전반을 포함하는 수용어휘력에서의 지체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곽윤지, 2016; 김수진, 2015; 김은지, 2016; 유경, 정은희, 김락형, 2007; 임재현, 황민아, 고선희, 2016). 수용어휘력이 전반적인 언어발달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점(김민경, 2015)을 고려할 때, 경계선 지능 범주의 아동들이 보이는 수용어휘력의 문제는 전반적인 언어능력에서의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재현, 황민아, 고선희, 2016).

3)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의 정서·행동적 특성

<표 III-8>을 바탕으로 분석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헌들은 공통적으로 경계선 지능 범주의 아동들이 문제행동,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에서의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김선주, 하은혜, 2015; 정희정, 이재연, 2005), 이외에도 소외감, 위축, 학습된 무기력 등의 내재적 문제도 동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정희정, 이재연, 2008). 또한 이와 같이 경계선 지능 범주의 아동들이 보일 수 있는 정서 및 행동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장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경계선 지능 학생들도 개별화된 심리적인 치료나 지원적 중재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송영혜, 2000).

<Table III-8>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with BIF

<표 III-8>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의 정서·행동적 특성

Authors	Methods	Thema of studies	Conclusion	Test tool
Jeong & Lee (2005)	Experimental	-Characteristics of psychology	-Social immaturity -Problem of attention	K-CBCL
Jeong & Lee (2008)	Experimental	-Characteristics of psychology	-Internal problem Excessive anxiety Psychological atrophy Learned helplessness	K-CBCL
Kim & Ha (2015)	Survey	-Characteristics of psychology -Problem behaviors	-Problem behaviors -Social immaturity -Problem of attention	K-CBCL
Song (2000)	Qualitative	-Model of psychotherapy	-The necessity of providing the individualized psychotherapeutic supports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계선 지능에 대한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동향 및 과제를 살펴보고, 현재까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정보들을 실제적 지식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지금부터 앞서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연구의 동향, 경계선 지능 발생 위험 및 예방요인, 그리고 심리적 특성의 순으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먼저 경계선 지능 관련 국내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의 출판 시기에 있어서 2000년대 이후에 출판된 논문이 대부분이었으며, 연도별로 출판되는 논문의 수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경계선 지능 범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Peltopuro와 동료들(2014)의 국외논문에 대한 문헌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써,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경계선 지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계선 지능 범주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관련 연구의 비중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가 이루어진 학문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체 연구의 50% 이상이 각종 치료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외 경계선 지능 관련 연구들이 교육학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고르게 이루어진 것과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이다(Douma, Dekker, Verhulst & Koot, 2006; Emerson, Einfeld & Stancliffe, 2010; Seltzer et al., 2005).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경계선 지능이 가진 범주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포함한 공교육에서의 관심이 부족하였으며(강옥려, 2016), 이로 인해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의 양육자들이 각종 치료를 통한 중재에 가장 먼저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지속되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에 대한 연구와 실재는 치료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을 포함하는 교육학 분야, 사회 복지 분야, 그리고 의학 분야 등을 포함하는 학문 전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방법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실험연구(16건), 중재연구(21건)가 전체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국외에서 실시된 연구들이 최대 1053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한 것(Hassiotis et al., 2008)에 비하면, 모집단의 수가 최소 10명에서 최대 80명 선으로 적어 경계선 지적 기능 집단의 대표성을 확고하게 확보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계속되는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모집단을 기반으로 하는 실험 및 중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실험 및 중재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보다 실증적인 정책적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내 문헌에서 초점을 둔 연구대상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학령기, 그 중에서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집중하여 실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계선 지능 범주 성인에 초점을 둔 연구는 진현정(2016)의 연구가 유일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

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습 결손의 심화 정도, 그리고 진로 및 직업 등에 대한 부분들도 심층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의 발생 위험 및 예방요인 그리고 이들을 위한 중재전략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선 지능의 발생 위험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경계선 지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생물학적 위험요인으로 소두증, 저체중, 미숙아 출산 등을 들고 있다(오승택 외, 2009; 정희정, 2002).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내용은 저체중과 미숙아 출산을 경계선 지능의 주요한 발생 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Chaudhari, Bhalerao, Chitale, Pandit, 그리고 Nene(1999)의 국외연구와도 일치한다. 소두증의 경우 뇌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지적장애나 뇌성마비 등과 같은 발달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진숙, 2010). 또한 저체중과 미숙아 출산 등의 경우에도 신생아기의 영양 섭취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심한 경우 뇌 기능상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능의 감소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여러 국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생물학적 위험 요인과 더불어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과 약물 중독도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Chen, Lawlor, Duggan, Hardy & Eaton, 2006), 생물학적 위험 요인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더불어 사회·행동적 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도 시작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계선 지능의 예방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모든 연구에서 경계선 지능 범주 집단이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집단에 비해서 차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 치료, 사회 복지 분야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강옥려, 2016; 고일영, 2010; 김근하, 김동일, 2007; 이숙향, 안혜신, 2011). 이는 경계선 지능 범주의 집단에 대하여 보다 유연한 지원 체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Peltopuro와 동료들(2014)의 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 범주의 학생들을 위한 보다 유연하고 개별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들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하는 부분도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강옥려, 2016).

이와 더불어 경계선 지능 범주의 성인의 자립에 대해서 연구한 진현정(2016)의 연구는 이들이 잠재적인 능력 수준에 비해서 사회·경제적인 자립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Seltzer와 동료들(2005)이 수행한 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성인들이 법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도 지적장애인 보다도 취업 인구의 비율이 낮고 경제적 빈곤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경계선 지능 성인의 취업이나 경제적 빈곤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연구가 시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 범주의 사람들이 교육을 통한 학습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관련 연구 수행

및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전환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재연구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연구의 양적인 부분에서 특수교육을 포함하는 교육학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보다는 치료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치료 영역에서의 연구는 미술치료, 놀이치료 분야의 연구가 특히 많았는데, 소집단 장면 혹은 개별 장면에서의 추가적인 중재가 필요하며, 부모가 함께 중재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서은경, 2015; 윤지현, 2014). 이는 치료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중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보다 양질의 교육이 가능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특징적인 중재전략으로, 국어과 지도에서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하거나(곽미영, 2006; 이기정, 2016),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쓰기 중재를 실시한 경우(김수영, 2006)가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는 컴퓨팅 기술을 통한 중재의 효과성을 보고한 Cuvo, Davis, O'Reilly 그리고 Mooney(1992)의 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픽 조직자나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는 중재는 학습장애 및 지적장애 학생 그리고 일반학생 모두에게서 효과가 있는 실체인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확인이 된 만큼(Ciullo & Reutebuch, 2013), 앞으로도 이들 중재 요소를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게 적용해보는 중재 연구가 계속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중재 과정에서 초인지 전략을 적용하였을 때, 실행기능 등에서도 부가적인 향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된 연구(맹새봄, 2012; 송현주, 2008; 이기정, 2016)와 지적장애 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학습 가능성이 높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강옥려, 2016), 인지적 중재 및 초인지 전략을 활용하는 보다 많은 중재가 이루어질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중재 과정에서 소집단 또는 개별적 교수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이금진, 2011). 따라서 향후 경계선 지능 범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해 보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며, 일반학교 장면에서도 이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교수적 수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더불어 전문가에 의한 증거(evidence) 기반의 체계적인 소집단 교수를 일정 시간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 진다.

다음으로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의 인지, 언어, 그리고 정서 및 행동 특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의 인지·학습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경계선 지능 범주의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서 지능검사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정희정, 이재연, 2005; 정희정, 이재연, 2008). 특히 언어성과 동작성 지능 중에서 언어성 지능에 상대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언어성 지능은 대뇌 중에서도 좌측 뇌의 발달 정도와 관련이 깊은데(신진숙, 2010),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들의 경우 뇌 발달의 불균형성으로 인하여 우측 뇌와 관련이 깊은 동작성 지능에 비교 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언어성 지능의 경우 언어의 적절한 활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학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학년이 증가할수록 다양한 학업 분야에서 일반적

인 지능을 보이는 학생들과의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김근하, 김동일, 2007). 한편 유경 등(2008)은 경계선 지능 범주의 아동들이 보이는 언어성 지능과 문제해결력에서의 문제가 단순언어장애가 보이는 수준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를 비취볼 때, 경계선 지능의 경우에도 단순언어장애 및 학습장애 등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범주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Fujiura, 2003).

둘째, 언어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모든 영역에서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아동들에 비해서 부족한 능력을 보이며, 특히 김수영(2002)의 연구에서는 문법형태소 사용 능력이 단순 언어장애 아동들과 유사한 정도로 지체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적인 언어중재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제언하기도 하였다. 또한 문자 해독 및 간단한 문장의 독해 등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복잡한 구문 및 단락 수준으로 갈수록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아동들에 비해서 성취 수준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는 연구(김주영, 김자경, 2016)를 통해 살펴봤을 때, 보상적이고 개별화된 언어중재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못한다면, 학년이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문제가 보다 심화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몇몇 연구에서는 언어연령 수준이 동일한 일반아동들에 비해서도 듣기 등의 일부 언어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는데(김민경, 2015; 김수진, 2015; 김은지, 2016; 이수진, 김화수, 2016; 임재현 황민아, 고선희, 2016), 이러한 결과는 경계선 지능 범주 아동들의 언어 능력이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아동들에 비해서 지체될 수는 있지만 발달 과정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존 문헌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언한 Peltopuro와 동료들(2014)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보고한 국내연구들 전체가 모두 15명 이하의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이거나 경계선 지능 아동들 중에서 언어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언어 문제가 두드러지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게 위해서는 대규모 집단 대상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의 정서·행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연구의 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확고하게 여기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모든 연구들에서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 불안 등의 정서 및 행동적 문제가 임상 수준에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선주, 하은혜, 2015; 정희정, 이재연, 2008). 이 중 특히 주의집중에서의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주의집중 능력의 부족이 결국 학습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 될 수 있다(정희정, 이재연, 2008). 따라서 송영혜(2000)는 발달장애학생들의 심리치료 모델을 개발하면서, 경계선 지능 범주의 아동들도 개별화된 심리적 중재가 요구될 수 있음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연구의 결과들은 대체적으로 여러 국외연구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ouma, Dekker, Verhulst & Koot, 2006; Emerson, Einfeld & Stancliffe, 2010; Peltopuro et al., 2014)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 다만 국외 연구에서는 경계선 지능 범주의 성인까지 연구의 범위를 넓혀 정서적 장애로 인한 약

물 중독(Hassiotis et al., 2008)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서·행동적 문제들의 발생 비율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현재까지 주로 치료 분야에서 이루어졌던 경계선 지능 관련 연구가 앞으로는 교육학을 포함하여 더 많은 학문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연구대상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연구가 덜 이루어진 영유아 및 성인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주로 이루어진 실험연구 이외에도 보다 다양한 방법론의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실험연구에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를 확대하고 실험 수행 과정의 질을 높이는 등의 방법들을 통해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보다 견고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두증, 저체중 및 미숙아 출산 등의 생물학적인 원인 이외에도 사회·행동적 요인 등을 포함하는 경계선 지능의 발생 위험에 대해서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의 발생과 심화를 예방할 수 있는 요인으로, 교육, 치료, 사회 복지적 지원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방 전략의 실제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학계 및 현장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이 보이는 언어성 지능에서의 문제, 수용 및 표현 언어능력에서의 복합적인 지체, 그리고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의 부족 등을 포함하는 정서·행동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당장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다소 어렵더라도, 적절한 교수적 수정 및 개별화 교육의 제공,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원을 위한 보다 유연한 체계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지금부터라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중재연구에 대한 조사와 고찰이 이루어졌을 뿐, 여러 중재 전략의 효과크기에 대한 통계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경계선 지능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성격의 연구이며, 대부분의 중재 연구가 사례 연구 또는 소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검증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많은 중재연구가 수행된 이후에 효과크기 분석을 포함하는 보다 체계적인 메타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분석 대상으로 학술지 게재 논문 이외에도 학위논문과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포함하였다. 이 중 학위논문 또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경우에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검증 과정인 피어리뷰(peer-reviewed)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과정 및 결과의 진실성 및 전문성을 확고하게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이 보다 누적된 이후에 학술지 게재 논문만을 대상으로 문헌 연구를 실시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논문을 선정함에 있어서 아직까지 경계선 지능 관련 국내 연구가 성숙되지 못한 점(강옥려, 2016)을 반영하여 연구 수행 과정에 대한 질적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

다. 이는 특히 중재연구나 실험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기존에 출판되어 있는 연구 질 척도 등을 이용하여 논문의 질을 평정한 뒤, 일정 기준에 부합되는 논문만을 선별하여 결과를 종합해 볼 필요도 있다.

참고문헌

- References marked with an asterisk (*) indicate studies included in the literature review.
- 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AAIDD). (2010). *Intellectual disability: Definition, classification, and system of support*.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 Arlington, VA: Author.
- Chaudhari, S., Bhalerao, M. R., Chitale, A., Pandit, A. N., & Nene, U. (1999). Pune low birth weight study: a six year follow up. *Indian Pediatrics*, 36(7), 669-676.
- Chen, C. Y., Lawlor, J. P., Duggan, A. K., Hardy, J. B., & Eaton, W. W. (2006). Mild cognitive impairment in early life and mental health problems in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6(10), 1772-1778.
- *Choi, M. O. (2014). Analysis of nurturing experiences mothers whose children have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disorde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6(1), 191-219.
- [최말옥 (2014).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6(1), 191-219.]
- *Choi, Y. M. (2016). Effect of group play therapy on improvement of social skills for institutionalized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 [최윤미 (2016). 집단놀이치료가 경계선 지능 시설아동의 사회기술 증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iullo, S. P., & Reutebuch, C. (2013). Computer-based graphic organizers for students with LD: A systematic review of literature. *Learning Disabilities Research & Practice*, 28(4), 196-201.
- Cuvo, A. J., Davis, P. K., O'Reilly, M. F., & Mooney, B. M. (1992). Promoting stimulus control with textual prompts and performance feedback for persons with mild

- disabilities.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25(2), 477-489.
- Douma, J. C. H., Dekker, M. C., Verhulst, F. C., & Koot, H. M. (2006). Self-reports on mental health problems of youth with moderate to borderline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5(10), 1224-1231.
- Emerson, E., Einfeld, S., & Stancliffe, R. J. (2010). The mental health of young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or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5(5), 579-587.
- Fujiura, G. T. (2003) Continuum of intellectual disability: demographic evidence for the “forgotten generati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41(6), 420-429.
- *Gang, O. L. (2016). Education of studen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tasks and resolutions.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7(1), 361-378.
[강옥려 (2016).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교육: 과제와 해결 방안. 한국초등교육, 27(1), 361-378.]
- *Go, I. Y. (2010). The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abilities. Korean Association For Rehabilitation Psychology.
[고일영 (2010).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 한국재활심리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
- *Gwak, M. Y. (2006). The effects of story map program on the story expression ability of children with language disorder.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곽미영 (2006). 스토리 맵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언어장애아동의 이야기 산출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Gwak, Y. J. (2016). Metaphor comprehension ability depending on contextual presence of school-aged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Master’s thesis, Dangoon University.
[곽윤지 (2016). 학령기 경계선지능아동의 문맥 유무에 따른 은유 이해 능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assiotis, A., Strydom, A., Hall, I., Ali, A., Lawrence-Smith, G., Melzer, H., Head, J., & Bebbington, P. (2008). Psychiatric morbidity and social functioning among adults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living in private household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2(2), 95-106.
- *Im, J. A. & Hwang, M. A. (2006). Grammaticality Judgement and Error Correction by Children with Developmental Language Impairments. *Korean Journal of Speech*

Sciences, 13(2), 59-72.

[임종아, 황민아 (2006). 경계선지능 언어발달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문법성 판단 및 오류수정 : 조사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Speech Sciences*, 13(2), 59-72.]

- *Im, J. H., Hwang, M. A., & Go, S. H. (2016). The comparison of phonological riddle-solving and phonological awareness between school-aged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5(4), 133-143.

[임재현, 황민아, 고선희 (2016). 학령기 경계선급 지능 아동과 일반 아동 간 음운 수수께끼 풀이와 음운인식능력 비교. *언어치료연구*, 25(4), 133-143.]

- *Jeong, H. J., & Lee, J. Y. (2005). The analysis on the cognitive, behavior characteristics of the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Child Welfare in Asia*, 3(3), 109-125.

[정희정, 이재연 (2005). 경계선 지능 아동의 인지적, 행동적 특성. *아시아아동복지연구*, 3(3), 109-125.]

- *Jeong, H. J., & Lee, J. Y. (2008). The characteristics of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2(4), 43-66.

[정희정, 이재연 (2008).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특성. *특수교육학연구*, 42(4), 43-66.]

- *Jeong, S. H. (2016). Assessing local child care centers in Daejeon serv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mplications for children's response to crisis in developmental stage. *Crisisonomy*, 66(1), 191-219.

[정선화 (2016). 지역아동센터 이용 장애아동의 발달 단계적 위기대처 방안 모색을 위한 실태조사. *Crisisonomy*, 12(2), 201-214.]

- *Jeong, H. J. (2002).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23(8). 963-975.

[정희정 (2002). 소아의 발달장애. *대한가정의학과 학회지*, 23(8), 963-975.]

- *Jeong, M. S. (2004). A case study of a borderline intellectual child with art therapy.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정문순 (2004). 미술치료를 통한 경계선 지능 아동의 부적응 행동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Jin, H. J. (2016). A study on the self-reliance process of adult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진현정 (2016). 경계선 지적 기능 성인의 자립과정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E. J. (2016). Inference of word meaning in accordance with definition presentation and context presentation for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Master's thesis, Dangook University.
[김은지 (2016). 경계선 지능 아동의 정의 제시 조건과 문맥 제시 조건에 따른 단어의미 추론.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E. J., & Won, H. L. (2013). An art therapy case study to improve the social skills and behavior problems of a child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whose mother has a hearing impairment.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0(1), 103-127.
[김은진, 원희랑 (2013). 청각장애 어머니를 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사회성 및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20(1), 103-127.]
- *Kim, G. H., & Kim, D. I. (2007). Grade level differences in academic achievements of elementary studen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007.
[김근하, 김동일 (2007). 경계선급 지능 초등학생의 학년별 학업 성취 변화. 한국특수교육 학회 2007년 학술대회 발표논문.]
- *Kim, H. B. (2012). The ability of shadowing speaking of sentences which have different lengths and structures by the children who have borderline intelligence & language developmental delay. Master's thesis, Dangook University.
[김후비 (2012). 경계선 지능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문장길이와 구조에 따른 문장 따라말 하기 수행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J. E., Park, J. H., Jeong, S. Y., Choo, K. H., Hwang, W. Y., Shin, H. S., Kim, Y. A., Lee, J. Y., & Nam, Y. J. (1973). Experimental study for teach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h slow learner. *Human Developmental Research*, 2, 11-61.
[김재은, 박준희, 정식영, 추국희, 황웅연, 신현숙, 김영애, 이지영, 남영자 (1973). 중학교 학습지진학생 지도를 위한 실험적 연구. 인간발달연구, 2, 11-61.]
- *Kim, J. Y., & Kim, J. K. (2016). Reading sub-domain characteristics of school-aged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3(1), 67-76.
[김주영, 김자경 (2016). 학령기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읽기 하위영역별 특성. 언어치료연구, 25(1), 67-76.]
- *Kim, M. K. (2015). Listening comprehension monitoring ability in school-age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Master's thesis, Dangook University.
[김민경 (2015). 학령기 경계선 지능 아동의 듣기이해 점검능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Kim, N. H. (2010). Influence of structured group play therapy upon emotional intelligence of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김남희 (2010). 구조화된 집단 놀이활동이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S. J., & Ha, E. H. (2015). The characteristics of behavioral problems of youth with psychological disorders in welfare institutions according to age and intelligence level.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8(3), 163-177.
[김선주, 하은혜 (2015). 복지시설 심리장애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지능수준에 따른 문제 행동특성.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8(3), 163-177.]
- *Kim, S. J. (2015). Comprehension of idioms in school-aged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Master's thesis, Dangook University.
[김수진 (2015). 학령기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관용어 이해능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S. Y. (2002). The use of grammatical morphemes of korean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 Master's thesis, Hanlim University.
[김수영 (2002). 언어발달지체아동의 문법형태소 사용 특성.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S. Y. (2006). The effect of electronic portfolio applied writing instruction on writing abilities of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Master's thesis, Dangook University.
[김수영 (2006). 전자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쓰기 지도가 경계선급 아동의 쓰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W. J., Lee, K. S., & Shin, E. J. (2007). Effect of emotional-social perception improvement program for clinical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김원정, 이경숙, 신의진 (2007). 경계선 지능 임상아동의 정서사회인지 향상 프로그램 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Kwun, Y. J. (1998). The effect of structured group play therapy for adjustment behaviors of a child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The Journal of Play Therapy*, 2(2), 53-71.
[권영주 (1998). 구조화된 집단놀이치료가 경계선지능 아동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2(2), 52-71.]
- *Lee, G. J. (2011). The effect of mentoring program for social maturity & self-esteem of the school-aged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focus on benefits of mentoring on

- mentee and ment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34, 137-165.
- [이금진 (2011). 학령기 경계선 지능 아동의 사회성숙도와 자존감향상을 위한 멘토링 효과성 분석: 대학생 멘토와 경계선 아동의 상호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4, 137-165.]
- *Lee, J. E. (2014). The case study of the parent-child interaction activation program with a borderline intellectual chil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이정은 (2014). 경계선 지능 아동의 모-아 상호작용 증진활동 사례연구 : 모의 반응성 향상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ee, J. S., & Park, H. S. (2002). A case study on play therapy for child who had regressive behavior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17(3), 217-238.
- [이정숙, 박현숙 (2002). 퇴행 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17(3), 217-238.]
- *Lee, G. J. (2016). The effect of journal writing with mind-map for studen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on writing abilities. *Korean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13(1), 107-126.
- [이기정 (2016). 마인드맵을 활용한 일기쓰기 활동이 경계선급 지능 학생의 쓰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장애연구*, 13(1), 107-126.]
- *Lee, M. L. (2012). Effect of social cognitive group art therapy according to mother-child intimacy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retardation. Master's thesis, Dong-eui University.
- [이미라 (2012). 지적장애아동의 모-자녀 친밀도에 따른 사회인지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효과.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ee, S. H., & Ahn, H. S. (2011). A Qualitative inquiry on realities and support needs regarding secondary inclusive education based on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parent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3(1), 203-235.
- [이숙향, 안혜신 (2011). 주등 통합교육의 현실 및 지원요구에 대한 질적 연구: 장애학생 부모의 통합교육 경험 및 인식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3(1), 203-235.]
- *Lee, S. J., & Kim, H. S. (2016). Characteristics on narratives of language disorder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Korean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8(2), 49-68.
- [이수진, 김화수 (2016). 설명담화에 나타난 경계선지능 언어장애 아동의 화용 특성. *지적장애연구*, 18(2), 49-68.]

- Lee, W. H., & Gwak, S. C. (2015). Analysis of the trend and tasks in qualitative research about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 2005-2014.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0(1), 261-290.
[이원희, 곽승철 (2015). 장애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의 동향분석 및 과제: 2005년-2014년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50(1), 261-290.]
- *Maeng, S. B. (2012). The effects of think-aloud training in the group game program on the executive functions, self-control, self-esteem of underachieved children. Master's thesis, Deok-seong Women's University.
[맹새봄 (2012). 집단게임놀이에서 Think aloud 활용이 학습부진아의 실행기능,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Oh, S. T., Lee, E. S., & Moon, H. W. (2009). The usefulness of diagnostic tests in children with language delay.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52(3), 289-294.
[오승택, 이은실, 문한우 (2009). 언어 발달지연 환아에서 진단적 검사의 유용성. 대한소아과 학회지, 52(3), 289-294.]
- *Oh, H. S. (2001). The art therapy for general ability improvement of borderline intellectual children.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8(1), 197-227.
[오현숙 (2001). 경계선지능 아동의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미술치료연구, 8(1), 197-227.]
- *Park, H. S. (2006). Comparison the performance of clarification requests in school-aged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and normal children. Master's thesis, Dangoon University.
[박혜성 (2006). 학령기 경계선 지능 아동과 일반 아동의 명료화 요구하기 수행 비교.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ark, S. J. (2016). A study of parenting experience for mothers with children of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using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of Giorgi. *Journal of Play Therapy*, 20(1), 1-17.
[박숙자 (2016). 경계선 지적 기능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경험 연구: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놀이치료연구, 20(1), 1-17.]
- Peltopuro, M., Ahonen, T., Kaartinen, J., Seppälä, H & Närhi, V. (2014).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52(6), 419-443.
- President's Committee on Mental Retardation. (1999). The forgotten generation: 1999 report to the president. Washington, DC: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elzer, M. M., Floyd, F. J., Greenberg, J., Lounds, J., Lindstrom, M., & Hong, J. (2005). Life course impacts of mild intellectual deficits.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10(6), 451-468.

*Seo, E. K. (2015). A case analysis of mother-child art therapy for a borderline intellectual child. Master's thesis, Yeongnam University.

[서은경 (2015). 경계선 지능 아동의 모자미술치료 사례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Shin, J. S. (2010). *Education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eoul: Yangseowon Publisher.

[신진숙 (2010). 지적장애아 교육. 서울: 양서원.]

*Song, H. J. (2008). The Effect of comparative-comprehension monitoring intervention on clarification requests in school-aged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Master's thesis, Dangkook University.

[송현주 (2008). 비교-이해점검중재가 학령기 경계선 지능 아동의 명료화 요구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Song, Y. H. (2000). A model of psychotherapy for developmental delayed children.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4, 41-56.

[송영혜 (2000). 발달장애아 심리치료 모형. 발달장애연구, 4, 41-56.]

*Song, Y. H., & Kim, Y. O. (2001). The effect of gameplay therapy upon a child's attention behavior improvement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The Journal of Play Therapy*, 5(2), 25-42.

[송영혜, 김양오 (2001). 게임놀이치료가 경계선지능 아동의 주의집중행동 향상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5(2), 25-42.]

*Yoo, K., Jeong, E. H., & Kim, R. H. (2007). Characteristics of language in the school-aged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9(4), 193-209.

[유경, 정은희, 김락형 (2007). 학령기 경계선지능 아동의 언어특성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9(4), 193-209.]

*Yoo, K., Jeong, E. H., & Kim, R. H. (2008). Intellectual characteristics of specific language disorder and borderline intelligence-language disorder. *The Korean Society Of Oriental Neuropsychiatry*, 19(1), 97-105.

[유경, 정은희, 김락형 (2008). 단순언어장애아동과 경계선지능 언어 발달장애아동의 인지

특성.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1), 97-105.]

- *Yoo, K., & Jeong, E. H. (2007). Characteristics of writing in school-aged borderline intelligence children with language disorder.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8(3), 231-247.

[유경, 정은희 (2007). 이야기쓰기활동을 통해 살펴본 학령기 경계선지능 언어발달장애아동의 쓰기특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3), 231-247.]

- *Yoo, K., & Jeong, E. H. (2008). Writing characteristics of school-aged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13(1), 63-85.

[유경, 정은희 (2008). 이야기쓰기를 통해 살펴본 학령기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쓰기특성.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13(1), 63-85.]

- *Yoo, S. M. (2015). Comprehension of lexical ambiguity in school-aged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Master's thesis, Danggook University.

[유승미 (2015). 학령기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어휘적 중의성 이해.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Yoon, J. A. (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xperience cases of the dance movement therapy S.D.T program for the youth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Doctoral thesis, Dongdeok Womenn's University.

[윤정아 (2015).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S.D.T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사례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Yoon, J. H. (2014). Effect of social cognitive group art therapy according to mother-child intimacy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retardation. Master's thesis, Dong-Eui University.

[윤지현 (2014). 지적장애아동의 모-자녀 친밀도에 따른 사회인지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Yoon, J. H., & Kim, E. H. (2000). A case Study on short term play therapy for maladaptive behavior child. *The Journal of Play Therapy*, 4(1), 67-81.

[윤지현, 김은혜 (2000). 부적응 행동아의 단기 놀이치료 사례. 놀이치료연구, 4(1), 67-81.]

국문초록

경계선 지능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분석

변 관 석¹ · 신 진 속²¹경남은혜학교, ²창원대학교 특수교육과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경계선 지적 기능에 대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앞으로 계속될 관련 분야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경계선 지적 기능과 관련된 국내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방법:** 논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산출된 345편의 논문 중에서, 체계적인 선정 과정을 거쳐 학술지 게재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 30편, 학위논문 21편, 총 51편의 연구를 문헌 고찰 과정에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문헌 연구 결과, 경계선 지적 기능과 관련된 국내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로 치료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로서 앞으로 교육학 및 기타 영역에서도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계선 지적 기능 범주의 아동들은 다양한 인지·학습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아동과의 학습격차가 학년이 증가할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개별화된 보상적 증제가 어떠한 통로로든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결론:** 본 문헌연구에서는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경계선 지적 기능 범주에 대해서 제공될 수 있는 유연한 지원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사회적인 논의가 요구됨을 제언하였다.

※ 핵심어 :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 연구 동향,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접수: 2017. 1. 26. / 수정본 접수: 2017. 3. 5. / 게재승인 : 2017. 3. 15.

※ 교신저자 : 신진속(sjsj5031@hanmail.net)